



“엑스포 상생 협력” 2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승수(오른쪽에서 세번째) 국무총리와 후진타오(왼쪽에서 네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2012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중국 2012 연수엑스포 조직위원회, 한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개 공공기관 통폐합

문화콘텐츠진흥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확실

공항 1~3개 민영화

정부는 26일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 환경, 연구개발 분야 등 기능이 중복되는 29개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대거 통합하고 3개 기관은 폐지, 7개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는 등 2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가운데 1~3개를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2차 개혁안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위원회는 계획대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향후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과 ‘콘텐츠 진흥기관’으로 통폐합되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통폐합돼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으로 거듭난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는 ‘저작권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통폐합된다.

통폐합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3개 기관 가운데 ‘저작권 위원회’와 ‘콘텐츠 진흥기관’은 타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될 계획이었던 한국정보보

호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으로 통합되면서 향후 진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에드컴 등 3개 기관을 폐지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R/D관리기관 등 7곳은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선별해서 1~3개를 매각하되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항을 일괄 독점 운영함에 따라 적자공항의 결산이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되면서 경영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상하이’ 노하우 ‘여수’와 공유

胡주석·韓총리 엑스포 협력 합의

3개항 14개 실천안 양해각서 체결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0 상하이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중 양국의 협조체제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관련기사 3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10 상하이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중세계박람회협력포럼 및 여수·상하이 세계박람회조직위 협력 MOU(양해각서) 서명식’을 갖고 양국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포럼에서 여수·상하이 박람회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3개 항목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박람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됐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국의 2010 상하이 엑스포 참가를 공식화하고 향후 여수·상하이박람회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KOTRA와 중국국

제무역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협력을 주고 받기로 했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이번 MOU를 통해 상하이박람회조직위의 박람회 준비 과정 마케팅 등에 대한 경험을 지원받음으로써 2012박람회 개최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후 주석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국 정부 고위인사와 박준영 전남지사, 여수·상하이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양국 미디어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는 세계인의 축제”라며 “이러한 행사를 상하이와 여수가 번갈아 개최, 양국이 협력을 해나가기로 협약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중국 박람회 협력양해각서 주요 내용

- ① 상하이박람회는 여수박람회 성공을 위해 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다.
- ② 양 박람회조직위는 양 국민이 박람회를 상호 방문하도록 장려한다.
- ③ 양 박람회조직위는 각 박람회 주제 관련 방문단을 상호 교환토록 한다.
- ④ 상하이 박람회 종료 후 상하이조직위는 한국에 대표를 보내 관련 경험을 공유한다.
- ⑤ 상하이조직위는 마케팅, 관광, 자원봉사자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한국에 제공하며, 여수 조직위도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의 협력한다.
- ⑥ 상하이조직위는 상하이 박람회기간동안 여수에서 파견되는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⑦ 양 조직위는 상호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위해 4/4분기중 협의회를 개최한다.
- ⑧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4년간 효력을 갖는다.

후진타오 주석도 “중국과 한국이 잇따라 개최하는 세계박람회는 모두 ‘해양’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 열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여수엑스포

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양국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동욱·채희종기자 tuim@kwangju.co.kr

환율 또 급등...1,090원 육박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째 급등하면서 1,090원에 바짝 다가섰다.
외환당국은 전날에 이어 개입에 나서지만 1,090원대 진입을 간신히 막았을 뿐 달러화 매수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0.50원 치솟은

1,089.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간 40.10원 급등하면서 2004년 11월16일의 1,090.30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코스피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1,500선 아래로 떨어져 전날 대비 11.86포인트(0.79%) 내린 1490.25에 장을 마쳤다. /최경호기자 choice@

北 “핵 불능화 중단...원상복구 고려”

외무성 대변인 “美, 테러지원국 삭제 합의 위반”

북한 외무성은 26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 합의를 위반했다고, 그 대응조치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이 지난 22일 뉴욕의 북미 접촉에서 제시한 검증 이행계획안에 대한 거부 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의 발표는 또 방한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이한 시점과 맞물려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 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

다”며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불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했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11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시점이 지나도 미국 정부의 조치가 없자 강경대응 방침을 뉴욕채널이나 14일 베이징을 방문한 상 김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에게 통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성명은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

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군부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불능화 중단 및 원상 복구’ 성명과 관련, “이번 북측의 조치는 6자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공동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능화의 재개를 북한측에 촉구했다.

유망학원 상환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ILDONG 위동제약

더우시죠? 지치고 피로하시죠?

무더위와 자외선이 강해질수록 항산화제 보강, **아로나민씨플러스**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감인 자외선으로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증가하여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비타민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 셀레늄, 아연 등 항산화제를 보강한 아로나민씨플러스는 발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제 보강 - 종합비타민 아로나민씨플러스
• 항산화제 보강: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 영양학적 보강
• 피로, 스트레스, 기피, 숙면

항생비타민 피로회복제 - 아로나민 골드
• 흡수가 잘 되는 항생비타민 B1, B6, B12와 비타민 C, E
• 피로, 신경통, 건통증, 병후·병후 회복제

건강이 재산입니다.

1. 1일 1회 식사 후 복용하시고, 2. 가이온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3. 셀레늄, 아연 보강: 비타민 C (200mg·25.75mg)

문의: 062-222-1111 | www.ildongpharm.com | 광고문의: 967-1000